

삶이 나를 단련시켰고,  
나는 나답게 살았노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이겨낸 삶

삶이 나를 단련 시켰고, 나는 나답게 살았노라

발행 | 2025년 08월 15일

저자 | 신○○

펴낸곳 | 한권의나

[www.1book1me.com](http://www.1book1me.com)

© 삶이 나를 단련 시켰고, 나는 나답게 살았노라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삶이 나를 단련시켰고,  
나는 나답게 살았노라

저자 : 신ㅇㅇ

# 목차

<u>프롤로그</u>	6
1장. 어린 시절, 전쟁의 그림자 아래	8
2장. 어머니의 부재와 누나의 사랑	16
3장. 젊음과 투지의 20대 그리고 결혼	32
4장. 현장에서 단련된 엔지니어의 길	54
5장. 인생의 전환점, 중국에서의 마지막 불꽃	80
6장. 나의 삶, 나의 행복	93
<u>에필로그</u>	109
부록. 아버지를 기억하며(둘째 아들의 이야기)	113

## **프롤로그**

나의 인생, 그리고 사랑과 눈물의 이야기

나는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광복의 합성으로 가득 차 있던 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환희는 갖 태어난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젖 한 모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고모의 품에서 겨우 생명을 이어가야 했던 그 연약 했던 아이가 어느새 80년을 살아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삶은 늘 거친 바람을 맞으며도 꺾이지 않고 뿌리를 내려온 한 그루 나무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한겨울의 차디찬 방 안에서 담요 한 장에 몸을 맡기며, 언젠가 밖에서 뛰놀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온 길 위에서 저는 배움의 기쁨을 알았고, 일의 고됨 속에서 삶의 보람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 밤을 지새우며 공장 설계도를 그리던 후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

었을 겁니다.

아내는 제가 철야로 공장에 남아있던 날에도 어린 두 아들을 품에 안고 혼자 그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위 십이지장 천공으로 쓰러졌을 때와 르망개발 마무리단계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간에도 그녀는 눈물로 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낸 것은 온전히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근검절약 하며 알뜰하게 저축하여 가족의 터전을 일궈낸 지혜, 아낌없이 쏟아낸 사랑…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삶에도 아내의 손을 잡고 갈 것입니다.

이 책은 저의 80년을 기록한 여성입니다. 한때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한때는 벽찬 성취로 가득했으며,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내가 걸어온 삶이 작은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기꺼이 부지런히, 때로는 눈물겨울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들을 가족과 웃으며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세월이 흘러도 기억되길 바랍니다.

## 제1장. 어린 시절, 전쟁의 그림자 아래

### 해방과 함께 태어난 젖을 먹지 못한 아이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159-4번지 본적지는 경상남도다. 어머니는 신장이 약해 나를 품에 안고도 젖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훗날 가족들의 입에서 전해졌지만,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어린 나는 고모님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겨우 생을 이어갔다. 둘째 고모의 딸인 사촌동생과는 한 달 차이로 태어난 동갑내기였다. 우리는 한 품에 안겨 번갈아 가며 고모의 젖을 빨았다. 그러니 항상 모자란 젖에 늘 배고픔을 달랠야 했던 나는 항상 병치례에 시달렸다고 한다. 어느 날은 미음으로 연명하기도 했기에 어린 내 몸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출생 전 가족사진

기억은 희미하지만, 어린 시절의 겨울은 유독 길고 춥게 느껴졌다. 나는 종종 천장이 낮고 한기가 스며드는 방에서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누워 있었다.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때면 나도 나가고 싶었지만, 허약한 몸 때문에 늘 창문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외로움과 열이 동시에 일어났다.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미음을 삼키며, 기침이 멎는 날을 기

다리며, 생에 대한 어린 본능으로 버텨냈다. 시간이 지나며 내 몸은 서서히 힘을 얻었고, 언젠가부터 나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연약했던 나는 평생 내 안에 자리 잡아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일깨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나의 삶은 광복의 날의 환희와는 전혀 다른, 싸우듯 버티며 살아남은 이야기로 시작됐다.

### 전쟁이 덮친 다섯 살의 여름

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히는 듯한 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었다. 서울은 혼란의 도가니였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삶터를 잃었다.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시흥군청 내무과의 주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좌익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 어느 날은 집으로 들이닥친 이들이 따발총을 겨누고 아버지를 협박했다. 그 순간마다 어머니는 그들을 불들고 울며 애원하였다. 아버지의 목숨은 어머니의 두 팔과 눈물에 겨우겨우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 시절 우

리 집에 함께 살던 막내 고모 때문이었다. 스물 두살의 꽃다운 나이에, 고모는 책을 좋아하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었다. 교회를 다니며 조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고모에게 S대 법대에 다니던 한 남자가 마음을 두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좌익 남로당이었다. 고모는 저녁마다 오빠, 즉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한다며 그에게 푸념을 털어놓았었던 것 같다.

그 남자는 전쟁통에 아버지에게 양깊음을 하고 싶어했다. 집으로 공산당과 들어와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가족들은 무슨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이 사건은 후에 우리 가족이 빠르게 부산 피란을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 피란길에 남겨진 사람들

아버지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이곳에 남아 있다가는 가족 모두의 생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다. 다섯 명의 아이들과 아픈 아내,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지키려면 선택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형과 나, 그리고 작은 누나만 데리고 피란길에 올랐다. “곧 미군이 수복하면 우리도 다시 올라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공산당이 공무원인 나를 노리면 가족모두가 위험하니, 셋만 같이 간다.” 그 말에 임신중인 어머니와 큰누나는 울먹이며 집에

남았다. 이별의 순간, 나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들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가 우리를 꼭 껴안던 그날의 온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짐을 이고 진 사람들, 아이들을 업은 어머니들, 피란민의 절박한 눈빛이 역사를 가득 채웠다. 역 안팎에서는 울음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가 뒤엉켜 한편의 전쟁 영화 같았다. 화차는 만원이었다. 사람들이 득달같이 화차에 타기 위해 달려들었다. 우리는 공무원 신분인 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화차에 탈 수 있었고, 아버지는 짐꾸러미를 동여맨 뒤 우리를 품에 안았다.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 담요로 몸을 감싸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부산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 석탄 연기 속을 지나며

화차는 기적 소리를 남기며 천천히 남쪽으로 향했다. 터널에 들어설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담요를 뒤집어쓰라고 했다. “숨을 꼭 참아야 한다, 눈도 감아라.” 석탄 연기가 터널 안에 가득 차 코끝을 태우며 퍼져 나왔다. 담요를 덮지 않으면 한순간에 숨이 막히고, 코와 입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다. 어린 나는 담요 속에서 숨죽이며 형의 팔에 매달렸다. 형은 형대로 어린 누이와

나를 감싸 안았다. 그 긴 터널이 끝나기를, 다시 밝은 하늘이 보이기를 바랐다.

기차는 부산까지 한 번에 가지 않았다. 왜관에서 우리는 모두 내려야 했다. “이제 더 이상 못 간다.”는 안내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다시 길 위에 올랐다. 걷다가 마차를 타기도 하고 또 걸어가고... 며칠을 그렇게 반복했다. 때로는 마을에서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친절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로 연명하며,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것 같다.

### 부산에서의 생존기

부산에 도착한 후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작은 누나는 가족 중 유일한 여자아이였기에 밥 짓고 빨래하며 피란 생활의 살림을 도맡았다. 형은 미군PX에서 나온 물자를 받아 목에 거는 판매대 위에 껌, 초콜릿, 드롭푸스를 길거리에서 팔며 돈을 벌었다. 나는 철없이 그 초콜릿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형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받은 껌을 씹으며 소소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 때 나는 6살 철부지였다.

부산에 있던 친척들은 우리에게 방 한 칸을 빌려주어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한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초량동에서 동대

신동으로,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거듭했다. 친척이라 해도 피란민 신세는 눈치가 보였고, 우리는 언제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웅크렸다. 아버지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부산의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우리를 지키며 강인한 모습을 잊지 않았다. 나에게 그 모습은 두고두고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 아버지의 기대와 긴 통학길에서 피어난 꿈

서울에 돌아온 후, 나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 학교는 이태리병원이 점령하고 있어 우리는 가건물에서 공부해야 했다. 사과 상자에 겹은 페인트를 칠한 칠판, 가마니 바닥에 앉아 공부하던 기억이 난다. 칠판 위에 적힌 글자는 희미했고, 교실에는 조개탄냄새가 진동했다. 선생님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가르쳤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해군 본부를 넘어야 했고, 통학에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뺨을 때렸고, 여름에는 땀이 등에 밴 채로 걷고 또 걸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차츰 강인함을 배워나갔다. 걸음마다 어린 나의 의지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 시절, 나는 철없고 외로웠다. 그러나 긴 통학길 위에서 문득

“내가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참모총장이 될 인물”이라고까지 했다. 그 말들은 어린 나에게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고, 학교와 집을 오가는 발걸음마다 그 꿈은 점점 커져갔다.

## 제2장. 어머니의 부재와 누나의 사랑

###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큰누나의 희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어린 시절의 눈으로 어머니의 고단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중풍에 걸린 어머니는 몸의 절반이 말을 듣지 않는 듯 뒤통거리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했다.

그 시절, 우리 집의 장녀인 큰누나는 말 그대로 가족의 기둥이었다.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다. 특히 어머니의 한약을 달이는 일은 큰누나의 몫이었다. 숯불 위에서 부채질을 하며 달이는 한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재탕, 삼탕까지 해야 하는 그 과정은 몇 시간을 꼬박 매달려야 했고, 한약방에 다녀와야 하는 일도 누나의 몫이었다. 몇 년 동안 누나는 그렇게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그 대가로 그녀의 학업은 중학

교에서 멈춰야 했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했고, 학업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큰 누나는 결국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학업은 중학교에서 멈췄다.

큰누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나보다 일곱 살 많은 큰누나는 나에게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산수 시험 점수를 누나에게 보여주면 “아이고 잘 했어, 우리 중근이” 하며 나를 다독여주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에게 애정 어린 칭찬을 해주던 사람은 큰누나뿐이었다.

지금도 큰누나와 눈이 마주치면 마음 한켠이 저릿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큰누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벼틸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속으로는 세상과 부모님을 원망했을지 모른다. 아직 젊은 나이에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삶, 그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다.

### 작은누나의 꿈과 현실

작은누나는 큰누나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도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여자아이가 대학까지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가면 바람만 듣다”는 아버

지의 말 한마디에 작은누나의 대학 생활은 시작도 못 하고 끝나 버렸다. 그 시절엔 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작은누나는 예쁜 외모로 주위의 관심을 받았다. 형이 돈을 벌 어오면 백화점에서 비싼 코트를 사와 작은누나에게 선물하곤 했고, 작은누나는 그것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와인 세븐 클럽’이라는 이쁜이클럽에 속해 있던 그녀는 친구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즐겼고, 그 속에서 나름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큰형 덕분에 작은누나는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당시 내게 작은누나는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존재였다. 큰누나는 나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었지만, 작은누나는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바빴던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누나들이 나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 새어머니의 등장과 집안의 변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분위기는 어둡게 변했다. 나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린 마음으로 슬픔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해서, 결국 아

버지는 열다섯 살 연하의 젊은 여자와 재혼하셨다. 새어머니가 오셨을 때 내 내이는 겨우 9살, 국민(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새어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함보다는 권위로 다가왔고, 나와 형제자매들의 기를 꺾는 일이 많았다. 그때 형은 18살, 큰누나는 16살 작은누나는 14살, 막내여동생은 4살.... 형과 누나들은 새어머니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나와 여동생은 철없는 나이였기에 새어머니의 눈엣가시였다. 게다가 나는 새어머니가 미운 생각이 들어 말도 안 듣고 더 반항했던 것 같다.

어머니가 없던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다. 반대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버릇없이 당돌해 보일만큼 어머니의 부재가 서러웠다.



국민(초등)학교 6학년 단체사진

나는 몸이 왜소했다. 국민(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전교 뛄뛰기를 했는데 나는 꽂지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다. 운동장에서 내가 헐떡이며 돌아올 때, 엄마 대신 김밥을 싸 온 큰누나는 깔깔 웃으며 “○○아, 꽂지에서 두 번째냐? 이리 와서 김밥 먹어라” 라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때의 웃음과 김밥의 온기가 어린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중소기업에서 경리와 회계를 맡았다. 한문에 능하고 글씨체가 좋아 법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아버지는 대서소도 했다. 그의 꼼꼼한 성품과 필체 덕분에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는 너무나 그리워 늘 결핍을 느꼈다.

### 청소년기의 도전과 성취

국민(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S중학교에 입학했다. S중학교는 당시 영등포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손꼽히던 학교였다. 지금의 강남구까지 포함된 넓은 영등포구의 명문 중학교였다. 입학은 쉽지 않았지만, 형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나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S중학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S고등학교로 진학했고, 나도 그 길을 따랐다. 하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나를 공업고등학교로 보내 빨리 취직해서 돈벌기를 은근히 바랬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고2 때 영등포 보건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결핵 초기 진단을 받았다. 보건소에서 처방받은 ‘나이드 라치트 유파스짓’이라는 약을 하루 세 번, 한 주먹씩 먹어야 했다. 위장이 견디지 못해 속이 쓰리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다.



중학교 2학년 도봉산 소풍 단체사진

그때 형은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형의 월급으로 유한양행의  
유유실업에서 나온 더 나은 결핵약인 유파스짓을 매달 사다주었  
다. “이거 먹어라” 하며 무뚝뚝하게 던져주는 형의 말투 뒤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나는 형의 도움 덕분에 꾸준  
히 약을 먹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병은 점차 호전되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처음에는 공업고등학교 진  
학을 권유하며 “기술을 배워야 먹고산다”고 했지만, 내가 S고등  
학교에 진학하자 돌연 S공대에 진학하라고 담임선생님에게 부탁

했다. 당시 S공대는 의대보다 접수가 높았을 만큼 최고의 명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폐결핵으로 기력이 쇠약해 밤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했고, 영양 보충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S고등학교 시절

그럼에도 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았다. 종로학원이나 YMCA 영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집에서 학교 공부에 매달리며 독학했다.

고3이 된 나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공부에 전념했다. 그리고 2차 모의고사에서 전교 5%이내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아버지께 자랑스레 성적을 말했지만 돌아온 건 “5% 해서 되겠어? 1, 2등을 해도 S공대 갈까 말까인데”라는 쓴소리였다. 칭찬대신 듣던 쓴소리에도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또한 그럴 겨를도 없었다. 나는 그냥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나를 괴롭히던 병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 친구들과 첫사랑의 기억

학창시절 내 곁에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시험에 함께 합격했던 친구는 특히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또 다른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나는 집안 사정과 어머니의 부재로 마음의 공허함이 컸기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오며 위안을 얻고 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지만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져 예전처럼 만나기

는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의 첫사랑. 교회에 다니며 문예부장까지 맡았던 나는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쪽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교감이 있었고,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우리를 서로의 짹으로 엮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밤중에 어딜 그렇게 쏘다니냐”며 나를 다그쳤고,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당시 나는 아버지에게 여학생과의 관계를 솔직히 말하지 못했고, 결국 여자친구에게도 “아버지가 만나지 말란다”며 헤어짐을 고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헤어짐의 평계였고,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S고등학교 2학년시절

나중에 우연히 들은 소식으로 그 여학생은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알 수 있는 그룹 회장의 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 들었다. 나는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변화를 실감했다. 첫 만남의 시간은 짧았지만, 내 학창시절의 풋 풋한 감정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소중한 추억이었다.

### 학창시절의 나: 성격, 고민, 그리고 취미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비교적 반듯한 성격의 아이였다. 체격이 애소한 편이었던 나는 친구들이 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며 거칠게 노는 모습을 볼 때도 그 무리에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암전했던 건 아니었다. 가끔 반에서 누군가 나를 약 올리거나 부당한 일을 하면 정의감에 불타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는 한 대 맞고 그대로 나자빠지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은 내 안에 있는 불같은 기질과 공부에 대한 집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당시 도시락은 친구들 간의 계층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다. 김 포 화곡동에서 온 친구들이 달걀프라이 두 개를 넣은 도시락을 꺼낼 때, 나는 콩자반, 멸치, 김치 중 한 두가지만 있었던 나의 소박한 반찬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예술과 음악에 대한 관심도 없진 않았다. 미술을 좋아하는 친

구의 권유로 몇 번 미술 전시회에 따라가 본 적도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와 함께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잠시 미술반에 들어가 6개월간 활동했지만, 곧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으로 그만두었다.

운동에도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학교 과목으로 배우던 유도와 검도는 내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중학교 시절 유도는 일주일에 두 시간씩 꾸준히 배웠고,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검도를 선택했다. 검도는 내게 팔의 힘과 집중력을 길러주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단단함을 키워주었다. 몽둥이 하나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후 삶의 여러 순간에 큰 힘이 되었다.

### 문학적 열정과 잊어버린 꿈

학창시절 나는 지리 과목을 좋아해 전 세계의 도시와 수도 이름을 줄줄 외웠다. 물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특히 화학과 미적분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나의 언어적 재능은 자연스레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일기로 내 마음을 표현했고, 그것이 긴 글로 변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정의로운 분노에 대해 쓰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나는 문학적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 문학소설, 세계 문학소설 등도 많이 읽었다. 적성 검사에서도 언어 추리력과 논리적 사고가 가장 높은 점수

를 기록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한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꿨다.

큰 고모의 막내딸인 사촌누나는 이화여대 영문과에 다녔는데, 때때로, 나를 잘 이끌어줬다. 청량리 큰집에 놀러 가면 누나는 나를 음악감상실에 테려가 클래식을 들려주고, 카페에서 차를 사주며 포부를 물었다. “넌 뭐가 되고 싶니?” 나는 변호사라고 답했고, 누나는 “그래, 변호사도 멋지지” 하며 응원해주었다. 그녀의 격려는 어린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나의 적성과는 달리 아버지는 공대 진학을 고집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철학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 사관학교의 문턱과 불안한 도전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나는 이과를 선택했다. 우리 학교는 총 6개 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1반은 사관학교 준비반, 6반은 S대학교 진학반으로 명성이 높았다. 나는 6반, 이른바 S대 반에 속해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울대와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반이었기에, 사관학교와는 무관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관학교 시험을 치라고 종용하셨다. 이유는 학비가 필요 없었고, 아버지 세대가 가진 군인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말을 전했고, 담임은 “네가 원한다면 해보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그해 9월, 공군사관학교 시험에 전국의 학생 4천~5천 명이 지원했고, 1차 합격자 110명에 내 이름이 올랐다. 경쟁률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성과였다. 적성검사, 체력검사, 기본 신체검사를 거치며 나는 스스로에게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적성이 있다는 확신까지 가졌다. 시뮬레이션 문제와 공간지각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에 내 마음은 설렜다.

그러나 정밀 신체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탈락을 통보받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당시 나는 폐결핵의 흔적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이 몹시 원망스러웠다. 최종 70명에 들지 못한 좌절은 컸다. 그리고 보름 뒤, 나는 S대학교 시험을 봤다. 준비가 부족한 나는 당연히 떨어져 2차시험은 포기하고 재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수생활은 처음부터 어려웠다. 당장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라는 아버지 말씀으로 3개월동안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가죽 자르는 일을 했다. 그 시절 나는 늘 한계와 싸우며,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불안한 도전을 이

어가고 있었다.

이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후의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내용은 본 미리보기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본 미리보기에서는 바로 ‘에필로그’로 넘어갑니다.

## 에필로그

“이제, 나는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온 길을 떠올리면, 한편의 긴 영화처럼 수많은 장면이 스쳐갑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어린 나를 품어준 고모님의 품, 젖을 먹지 못해 앙상했던 작은 몸이 미음을 삼키며 벼濡던 나날들. 그 후에도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공장 바닥에서 나를 불태우듯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마다 제 곁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아내

병실에서 나를 지키던 아내의 눈물, 아픈 남편 곁에서 두려움을 애써 삼키며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을 나는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

“고맙소.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은 언제나 봄날이었소.”

또한 두 아들과 두 며느리. 당신들은 내 삶의 자랑입니다. 두 아들이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남기면서, 내 모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진 지금, 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삶은 기적입니다.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이켜볼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 모두가 기적입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려 합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한 줌의 위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봄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도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 **부록. 아버지를 기억하며(둘째 아들의 이야기)**

### **자동차와 함께한 추억들**

나는 종종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린다. 늘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시던 그 모습. 인천 공장까지 왕복 1시간 가까운 거리를 매일같이 운전하셨던 기억은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풍경이었다.

부장이 되시기 전에는 카풀로 출퇴근하셨다. 다른 직원들과 나눠 타며 긴 시간을 보내셨지만, 부장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셨다. 물론 그 전에는 실적 때문인지, 자가용을 사서 그 첫 번째 차는 대우의 ‘맵시나’였다. 각진 디자인과 갈색에 가까운 독특한 붉은빛은 요즘 시선으로는 촌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 차가 우리 가족에게 생긴 첫 번째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그 차가 주차된 아파트 단지의 모습과, 그 옆에서 아버지가 서성이는 장면을 기억한다. 어린 나에게 아버지는 차를 가진 사람, 책임을 진 사람, 그리고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아버지는 이후 르망 GTE를 몰았다. 국산화 엔진을 장착한 그 차는 은은한 은색 빛깔로 반짝였고, 어린 나에게는 자랑거리였다. “아버지가 만든 엔진이 들어간 차”라는 사실 하나로도 가슴이 벅찼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르망 프로젝트에서 엔진과 주요 부품 국산화의 핵심 엔지니어셨다. 르망 GTE를 타고 가족이 나섰던 나들이 길마다 어린 나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에스페로가 우리 집에 왔다. 르망보다 더 큰 차체와 부드러운 곡선미를 지닌 이 차는 아버지가 부장이 된 뒤 받으신 차량이었다. 은퇴전에는 브로흐이라는 차량을 운전하셨다. 브로흐은 당시 대우자동차의 고급 세단이었다.

나는 어릴 적 인천 공장에 따라간 기억도 떠오른다. 공장 로비 벽면에 붙어 있던 직원별 자동차 판매 실적표, 그곳에서 암도적인 숫자로 기록된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어린 마음에 의문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많은 차를 팔았을까?’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아버지가 단순히 판매자가 아니라 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부서의 성과까지 책임지고 계셨다는 것을.

### 형과 나, 다른 시선 속의 아버지

아버지는 장남인 형에게 더욱 엄격했다. 책을 읽고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공부를 잘하도록 늘 독려했다. 첫째에게 기대가 쏠

린 만큼, 나는 둘째로서 조금 더 자유로웠다. 그 자유는 때때로 나를 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형이 깊어진 무거운 기대를 멀리서 지켜봐야 했다.

아버지는 때로는 손찌검도 하셨다. 덩치가 크셨던 아버지의 손 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체별을 바꾸셨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밤 12시에 집 뒤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 죄송합니다”를 스무 번 외치고 오라는 별 을 받았다. 인적 없는 산길, 어둠과 적막 속에서 나는 떨리는 목 소리로 외쳤다. 그날의 공포와 긴장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 아버지의 방식, 사랑의 다른 얼굴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던 게임기와 곰인형도 던지셨다. 어느 날은 제믹스 게임기가 산산조각 났고, 또 다른 날은 곰인형이 비가 내리는 창밖으로 던져졌다. 나는 그 젖은 곰인형을 주워와 안고 울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밉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아버지 나름의 방법이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아버지의 방식.

중학교 2학년, 나는 독서실 대신 오락실에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와 거구로 날아오르듯 날라차기를 하셨다. 게임에 열중하던 나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날 옆에서 함께 게임하

던 친구마저 아버지의 빌차기에 놀랐으리라. 이후 아버지는 “너는 지금 관악산에 있는 연주암에 올라가 그곳 주지 스님께 너의 잘못을 말하고 주지 스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도록 설득해라”는 미션을 주셨다. 그때 안개 낀 산길을 오르다 만난 등산객이 나눠 준 사과 한 조각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문득 스며든 따뜻한 온기였다.

### 남자들만의 여행, 그리고 또 다른 기억들

어머니가 대학원 계절학기를 다니느라 바쁘시던 시절, 형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유성온천과 설악산을 여행했다. 구룡폭포 앞에서 형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형을 따라 내려가다 미끄러져 머리를 바위에 부딪쳤고, 아버지는 나를 꽉 안으며 놀란 목소리로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외쳤다. 그 짧은 순간, 평소와는 달리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 나의 아버지

55세에 은퇴한 아버지는 한동안 집 안에서 골방에 앉아 계셨다.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대학생이 된 내게 낯설고 안타까웠다. 다행히 인도의 고문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시며 점차 활력을 되찾으셨다. 가스레인지도 켜본 적 없던 아버지가

라면을 끓이는 법을 배우며 우리와 조금씩 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의 아버지는 예전보다 감정 표현에 솔직하시다. “행복하다”, “좋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다. 여전히 가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그 모습조차 이제는 사랑스럽다.

아버지는 나와 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워내셨다. 거칠고 때로는 무서운 모습 뒤에는 언제나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나는 그 시절의 곰인형과 게임기, 판악산의 안개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세운 그 기둥의 그림자를 따라, 나도 누군가의 기둥으로 서 있다.

"돌이켜보면, 이 삶은 늘 거친 바람을 맞으며도  
꺾이지 않고 뿌리를 내려온 한 그루 나무 같았습니다."



한권의 나